

與野 지도부 회동… 金 “비쟁점안 처리” 李 “경제회의 구성”

김기현 대표, 취임 인사차 만남 제언
민생문제 해결 공감… 협치 강조
대일관계, 방탄논란 등 공방 여전

김기현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것에 공감했다. 협치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는 격주 단위 만남과 함께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 ‘대선공통공약 추진단’, ‘범국민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인사차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양측은 조울한 끝에 15일 만나기로 했고, 김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회동이 성사됐다.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만난 양당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했고 이를 위해 협치하자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산적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이 대표 글에 100% 공감한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국가 안전보장 등 국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오른쪽부터) 비서실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이철규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

/손진영기자 son@

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배가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 일환으로 다양한 대화 채널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이 그동안 비상체제였다 보니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 뵙고 시간이 되면 찾아오기도 하면서 격주 단위로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김 대표가 당선 직후에 말한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과 국민 삶이 어려운 만큼, 여야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찾아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 입장을 떠나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전들이나 정책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된다”며 대선

공동공약추진단 구성과 비상경제회의 추진을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쟁점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민생 관련 현안 협력에 공감했다.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요청했고, 그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말했고, 이 대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하게 해제하자는 게 본인 입장’이라는 말로 호응했다. 김 대표가 격주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이 대표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자고 호응했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양당 대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규제 완화 제안에) 이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국민 안전·생명 관련)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여야 당 대표 간 자주 뵈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도 여야 간 협력과 민생을 위해 자주 뵙자고 말했다. (두 대표가) 자주 뵙자는 취지에서 분위기가 화기에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의 방탄 국회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비쟁점 현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지기 힘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주당, ‘한국판 IRA법’ 발의

수소·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장 추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정부안 처리
“경제위기 극복위해 책임·역할 수행”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요국들의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전략기술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와 성장이 유망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법을 통해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약화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등의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도록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의존도(전체 수입액 중 중국 수입액)가 지난해 87.9%, 코발트는 72.8%일 정도로 높아 IRA법에 자동차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의 협상력 발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집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8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 ‘탄소중립산업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신들은 EU가 미국 IRA법 시행에 따른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 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 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탄소중립산업보호 특별법은 오는 20일 산업분과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논의될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이재용 등 4대 그룹 총수 모두 참석”

(삼성전자 회장)

대통령실 일본측 참석자 명단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계기 한일 양국 재계가 주관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주관하는 이 자리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류진 풍산회

장,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중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수석은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일본 기업의 참석에 대해서 “양쪽 경제인들이 모이는데 대통령이 초청받았고, 일본 측은 도쿠라 마사카츠 경단련 회장이 참석하고, 한국과 비즈니스에 긴밀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 명단은 경단련 발표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 참석자도 현재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통령실 “한일정상간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선언 발표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할 뿐

만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며 “정제된 문구가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충분히 심도 있게 가진 다음에 윤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도 결과를 상세를 브리핑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